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비죽비죽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비죽비죽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비죽비죽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언짢거나 비웃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거리다. '비죽비죽하다' 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대
벋죽벋죽하다	-	-	-
비죽비죽하다	-	-	-

완성된 이름

비죽비죽하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언짢거나 비웃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거리다. '비죽비죽하다' 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삐죽삐죽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언짢거나 비웃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거리다. ‘비죽비죽하다’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삐죽삐죽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삐죽삐죽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삿죽삿죽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삐죽삐죽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삿죽삿죽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삐죽삐죽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삿죽삿죽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삐죽삐죽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삐죽삐죽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췌죽췌죽하다
19세기
- 뽀죽뽀죽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6종

췌죽췌죽하-, 췌췌췌췌하-, 췌죽췌죽하-, 뽌죽뽌죽하-, 뽀죽뽀죽하-, 뽀죽뽀죽하-

ㄱ 뽀죽뽀죽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ㄷ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뽀죽뽀죽하다’의 옛말인 ‘췌죽췌죽하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ㄱ 말의 구성과 어원

‘췌죽췌죽하다’는 ‘뽀죽뽀죽’의 옛말인 ‘췌죽췌죽’과 현대어 ‘하-’로 이어지는 ‘-하-’가 결합한 것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20세기에는 18세기 이후 나타난 ‘ㄷ’가 ‘ㅌ’로 변하는 현상의 영향으로 ‘하’가 ‘하’로 바뀌고, ‘죽’의 된소리를 ‘췌’으로 표기한 ‘췌췌췌췌하-’가 나타난다. 또한 ‘췌췌췌췌하-’의 제2음절과 제4음절을 ‘죽’으로 표기한 ‘췌죽췌죽하-’, ‘췌죽췌죽하-’의 ‘췌’을 ‘뽀’으로 표기한 ‘뽀죽뽀죽하-’, ‘뽌죽뽌죽하-’도 20세기에 나타난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적도록 함에 따라 ‘뽀죽뽀죽하-’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비쪽비쪽하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뽕죽뽕죽하다 -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뽕죽뽕죽하다 -

출처 1880 한불사전 329

용례 01

66 문헌 용례

뽕죽뽕죽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씨쑹씨쑹하다-, 씨죽씨죽하다-, 뽕죽뽕죽하다-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씨쑹씨쑹하다-, 씨죽씨죽하다-, 뽕죽뽕죽하다-, 뽕죽뽕죽하다-

출처 1923 조선일보 12월 11일 4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성이 나서 입을 씨쑹씨쑹하면서 갔다.

현대어 풀이

성이 나서 입을 뽕죽뽕죽하면서 갔다.

출처 1927 조선일보 9월 7일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복주는 참을 수 없는 듯이 울면서 씨죽씨죽하여지는 입을 겨우 모아 가면서 말을 한다.

현대어 풀이

복주는 참을 수 없는 듯이 울면서 뽕죽뽕죽해지는 입을 겨우 모아 가면서 말을 한다.

출처 1934 동아일보 6월 11일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입을 뻗죽뻗죽하고 흥을 보았다.

現代어 풀이

입을 뻗죽뻗죽하고 흥을 보았다.

출처 1938 조선일보 8월 12일 5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볼따구니를 불룩불룩하고 입을 뻗죽뻗죽하는 게 마치 인절미를 불에 구면 불룩불룩하는 거와
갓다고 해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뻗죽뻗죽하다 관련 낱말

비죽비죽하다, 뻗죽거리다, 뻗죽뻗죽하다

뻗죽뻗죽하단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뻗죽뻗죽하단의 뜻과 역사](#)